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부채한도 확대 실패하면 10/18일 채무불이행에 직면
 -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공급병목 문제가 해결될 필요
 -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109.3을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최저 수준
 - ECB 총재, 인플레이션 상승에 과잉대응을 자제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채권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주가 하락

주가 하락[-2.0%], 달러화 강세[+0.4%],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과 **기술주 매도 증가** 등으로 큰 폭 하락
유로 Stoxx 600 지수는 **중국경제 둔화** 전망과 **기술주 약세**로 일주일래 최저 수준
- 환율: **달러화**지수는 11월 **타이퍼링** 가능성과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10개월래 최고치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불안** 등으로 6월 이후 최고치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의 영향 등으로 **상승세** 지속

※ 원/달러 1M NDF환율(1188.4원, +3.4원) 0.3% 상승, 한국 CDS 상승

		9/28일	9/27일	전일대비			9/28일	9/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352.6	4,443.1	-2.04%	국채 금리 10y	미국	1.54%	1.49%	5bp
	유럽	452.35	462.42	-2.18%		독일	-0.20%	-0.22%	2bp
	중국	3,602.2	3,582.8	0.54%	CDS 5y	한국	20bp	19bp	1bp
	일본	30,184	30,240	-0.19%		중국	48bp	45bp	3bp
	한국	3,097.9	3,133.6	-1.14%	위험 지표	EMBI+	-	370	-
환율	달러지수	93.72	93.38	0.36%		VIX	23.25	18.76	23.93%
	유로화	1.1683	1.1695	-0.10%		WTI유	75.29	75.45	-0.21%
	엔화	111.50	111.00	-0.45%	원자재	구리	424.5	429.4	-1.13%
	위안화	6.4603	6.4570	-0.05%		금	1,734.0	1,750.2	-0.92%
	원화	1,184.4	1,176.8	-0.64%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부채한도 확대 실패하면 10/18일 채무불이행에 직면

- 옐런 장관은 해당일까지 부채한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유현금이 소진되어 필요한 비용 지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언급. 또한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상원에서 민주당은 현 지출을 12/3일까지 유지하는 임시예산안과 부채한도 확대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 다만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정부의 섣다운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
- JP모건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은 미국의 채무불이행이 잠재적인 재앙과 같으며, 이를 대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언급. 그러나 의회에서 그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결국 해결책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공급병목 문제가 해결될 필요

-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결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일부 부문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한편 애틀랜타 연은의 보우만 총재는 미국 노동시장이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경제는 완전한 회복의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또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회복의 힘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첨언

■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109.3을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최저 수준

- 이번 결과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에 기인. 컨퍼런스보드의 Lynn Franco는 단기 경제전망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 자동차, 가전 등에 대한 소비지출 의향도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 ECB 총재, 인플레이션 상승에 과잉대응을 자제할 방침

-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긴축에 인내심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미국과 EU, 중국 등 비시장 경제의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 미국 무역대표부의 타이 대표는 EU의 돔브로프스키스 무역담당 위원과 함께 양측의 무역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언

■ 영란은행 통화위원, 인플레이션 신호가 심각한 문제로 전이되지는 않을 전망

- 캐서린 만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며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진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면 2022년 초 금리인상 가능성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홍콩 정부, 은행권의 중국 부동산 기업에 대한 노출 수준은 제한적

- 금융관리국은 해당 평가를 통해 중국발 부동산 불안에 따른 영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발표. 또한 이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첨언

■ 씨티그룹, 중국 2022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5.5%→4.9%)

- 헝다그룹의 부채문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 다만 이로 인해 정책당국은 금리인하 등의 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금년 10월에는 50bp의 지급준비율이 인하되고, 내년에는 25bp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OPEC, 2023년 원유수요는 2019년 수준을 초과할 전망

- 바킨도 사무총장은 경기회복 등으로 원유수요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다만 전기자동차의 보편화 등으로 2035년부터는 정체될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2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전년동월비): 19.7%, 6월(18.7%), 예상치(20%)
- 미국 7월 FHFA 주택가격지수(전월비): 1.4%, 6월(1.7%), 예상치(-)
- 미국 8월 상품무역수지(억달러): -876, 7월(-877), 예상치(-)
- 독일 10월 Gfk 소비자신뢰: 0.3, 9월(-1.1), 예상치(-1.8)

■ 주요 경제 이벤트(9/29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ECB 라가르드 총재 및 데 귀도스 부총재 강연
- 미국 8월 잠정주택판매, 유로존 9월 소비자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투자자들은 채권시장을 다시 주목할 필요 - 블룸버그

(It's Time to Watch the Bond Market Closely Again)

-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창 고조되었던 3월말 고점(1.71%)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최근 4일간 24bp 급등(1.54%)
-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성공했던 80년대 이래 10년 국채금리는 하향 추세선을 상향 돌파해오지 못했으며 현재 추세선은 2%에 위치. 국채금리가 하향 추세선에 일시적으로 도달했을 때마다 금융 불안이 확대된 경험 존재
- 팬더믹 이후, 주식시장의 채권시장 대비 상대수익률은 5년 물가연동채 Breakeven과 정확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국채금리가 2% 추세선에 달해 주식시장이 불안해진다면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으로 예상
- 물가관련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소비자 및 기업심리, 원자재 가격, 특히 임금상승세는 높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블룸버그 서베이 등 전문가들의 전망치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에 이어 여전히 문제는 산적 - WSJ

(Sunac Isn't Evergrande—But It Is on Shaky Ground)

- 일각에서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문제는 헝다그룹 외에 수낙(融創)도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 중국 정부가 자금조달 수단을 제한하는 가운데 수낙의 주택구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규모는 6월 기준 500억달러로 추정
- 수낙의 매출은 2020년에 2016년보다 6배 늘어난 357억달러이며, 차입액도 이와 유사한 비율로 증가하여 6월말 기준 470억달러. 수낙의 재무건전성은 헝다그룹보다 양호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시 부채상환 부담도 가중될 전망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정부 내부 갈등으로 재연 가능성 - Financial Times

(Argentina could repeat its economic woes)

■ 전력 비용 상승에 따른 알루미늄 가격 급등, 중국 건설업 등 여러 부문에 악영향 - 블룸버그

(Aluminum's Surge Is Really an Energy Crisis in Disguis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